

'현우경' 이야기 (18)

비구가 된 원숭이

발우에 늘 꿀물이 가득한 스님의 사연

어떤 부자가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다. 부자는 고민 끝에 점쟁이를 찾아가 자식이 없는 이유를 물었다. 점쟁이가 말했다.

"당신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운명입니다."

부자는 이 말을 듣고 근심에 잠겼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아가야 한다니...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준다 말인가."

이런 모습을 지켜본 아내 역시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부자의 집에 들르게 됐다. 스님은 근심에 잠긴 부부에게 이유를 물었다.

"왜 이렇게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부부는 스님에게 말했다. "점쟁이가 말하길 우리들엔 아이가 생기지 않을 거라

고 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점쟁이는 사람의 인연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부처님을 찾아가 그 연유에 대해 여쭙 보십시오."

부부는 스님의 말을 듣고 곧장 부처님을 찾았다.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아이가 생길 것이나 자라면 출가할 것입니다."

"아이가 커서 도를 깨친다면 그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는 부처님의 답을 듣고 뭇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부부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공양을 올리고자 했다. 부처님은 이를 승낙하고 부부의 집에 들러 스님들과 함께 공양을 했다.

절로 돌아오는길 공양을 마친 부처님은 스님들과 개울가에 들르게 됐다. 그때 원숭



삼화 · 강병호

이 한 마리가 나타나 물 마시며 쉬고 있는 부처님과 스님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한 스님이 갖고 있던 발우를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지켜본 부처님이 원숭이에게 발우를 건네주라고 하자, 원숭이는 발우를 들고 어디론가 달려갔다.

잠시 후, 원숭이는 발우에 꿀을 한 가득 담아 부처님에게 공양으로 올렸다. 부처님이 말했다.

"물을 타 오거라."

원숭이는 부처님 말씀대로 물을 타와 다시 올렸다. 부처님은 원숭이가 공양으로 올

린 꿀물을 스님들과 함께 골고루 나눠 마셨다. 이 모습을 지켜본 원숭이는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표했다. 원숭이는 매우 기뻐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 구덩이에 빠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제 집을 떠나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과거에 부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을 떠올리며 아들의 출가를 허락하기로 했다.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청했다. 부처님은 아들의 출가를 흔쾌히 허락했다.

비구가 된 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이 됐다. 그는 늘 여러 비구들과 함께 수행 했는데, 항상 그의 발우에만 꿀물이 가득했다. 그는 꿀물을 매일 같이 다른 비구들과 나눠 마시며 생활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다.

"어째서 저 비구의 발우에만 꿀물이 항상 담겨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과거에 공양을 하고 개울가에 들렀을 때, 한 원숭이가 나에게 꿀물을 준 적이 있다. 내가 그 꿀물을 받아먹자 너무 기뻐 춤을 추다 그만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그때 원숭이가 지금 저 비구이다. 그는 과거 아라한에게 '원숭이 같다'고 말해 그 업으로 원숭이로 태어났다. 하지만 일찍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 지금의 비구가 된 것이다. 그러니 모든 법을 알고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광대장경 속 우화 20

-여인을 살리고 지옥을 가다-

구성-김흥인



* 각색으로 인한 왜곡이 있을을 양해 구합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 (교무실) 054)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지구산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 3간접집 목조건물: 9500×7000×4500mm / 가격: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벽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1800×1030×400mm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플리프로필렌 자체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원가세 운송비 별도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판 설치가 간단한 평상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문의전화: 055) 747 - 8419
- 수 강 일: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함안교육원>

- 입교일시: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달전사)
- 문의전화: 055) 587 - 8419
- 수 강 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타루는 법
- 수강자격: 삭발의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